**로마서**

**배경**: 사도 바울(1:1)이 삼차 선교여행 중 (57년경)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(1:7)에게 보낸 편지. 지중해 동부에서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면서 그는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다. 그러나 속히 갈 여건이 되지 않아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스페인으로 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다. 이 편지는 로마 방문 사역을 위한 신학적 준비로 볼 수 있다.

**목적**: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.

1. 로마 방문과 스페인 선교를 위한 준비 (1:10-15, 15:22-29).
2. 아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회에게 구원의 기본 체계를 제시.
3.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.

**주제**: 로마서의 주제는 ‘복음’ 즉, 유대인과 이방인,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의 계획이다 (1:16-17). “하나님의 복음”(1:1)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죄책, 성화, 확신 등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포함한다.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한 책이다.

**개요**

1. 서언 (1:1-15)
2. 주제: 하나님의 의 (1:16-17)
3. 모든 인류의 불의 (1:18-3:20)
4. 의의 전가: 칭의 (3:31-5:21)
5. 의의 부여: 성화 (6:1-8:39)
6. 하나님의 의의 증명: 이스라엘을 거부하신 문제 (9:1-11:36)
7. 의의 실천 (12:1-15:13)
8. 결론 (15:14-33)
9. 끝내는 말 (16:1-27)